빛나는 하남 시민이 좋아 합니다 하남이 좋아 집니다	보 도 자 료				
보도일시	2021. 4. 14.(수)	매 수	2매	담당부서	도시전략과
		참고자료	-		
배포일시	2021. 4. 14.(수)	사 진	2매		
담당자	도시전략과장 진동철 (☎ 031-790-6090) 교산사업팀장 전 일 (☎ 031-790-5102) 주 무 관 박영준 (☎ 031-790-5563)				

김상호 하남시장, 교산지구 주민 선호도 고려 '대토보상 추가 공급 촉구'

○ 김 시장, 14일 국토부와 LH에 주민 선호 반영한 근생 등 필지 대토보상 추가 공급 정식 요청
○ 김 시장, "교산지구 주민 재정착 위해 주민과 시 의견 반영한 대토보상 최대한 이뤄져야"

김상호 하남시장은 교산신도시 대토보상과 관련, 14일 국토부와 LH에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근생·주상복합·상업시설 필지를 추가 공급해줄 것을 요구했다.

시에 따르면, 국토교통부와 교산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정식으로 전달했다.

LH는 지난 3월 교산신도시 내 ▲근생 11필지(1만318㎡) ▲주상복합 5필지(5만9393㎡) ▲자족시설용지 67필지(45만5312㎡) 등 총 7개 용도 토지 93필지 82만494㎡를 대상으로 대토보상을 접수, 이달 중 대상자를 선정해 다음 달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었다.

그러나 대토보상 접수 결과 주상복합·근생·상업 용도 등 일부 블록을 제외하고는 미달사태가 발생, 지역주민 등 불만이 제기돼 왔다.

시 역시 주상복합 용도 등 일부 블록에 신청자가 집중돼 탈락자가 발생하면, 보상금이 주변지역 부동산으로 유입돼 지역 부동산 상승 우려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.

이에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지속 주장해 온 김 시장은 주민 선호도를 고려한 대토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 잔여 필지 근생 70필지(6만2053㎡), 주상복합 7필지(5만8358㎡) 등이 지역주민에 최대한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나섰다.

김 시장은 “대토보상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려는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”이라며, “교산지구에서 오랜 기간 공동체를 이루며 살던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, 주민과 시의 의견을 반영한 대토보상이 최대한 이뤄져야 한다”고 밝혔다.

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으로 주민 선호도를 고려해 토지이용계획 상 우량블록 등 대토 대상지역 및 범위를 확대하는 ‘대토보상 확대방안’을 발표한 바 있다.